

2023년 5월 7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백) 부활 제 5 주일 (생명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5 월]



복음화 지향 :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이며 생명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 주시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성실히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6,1-7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다.>

화답송 시편 33(32),1-2.4-5.18-19 (◎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2독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2,4-9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입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12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성체송 요한 15,1.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당신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은 늘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보다 심판과 벌을 먼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두렵고 힘들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믿음의 깨달음을 주십시오고 청하여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강수원 베드로 신부 ♣

진리

길은 나보다 앞서 걸어간 이의 흔적입니다. 아무리 "이 길의 끝은 정말 좋은 곳이니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하고 외쳐도, 그가 누구인지,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면 무작정 따라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따르겠다는 베드로, 주님의 목적지도 길도 모른다는 토마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그저 아버지를 뵈게만 해 달라는 필립보, 이들은 주님과 이별하는 순간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 당신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주님 자신)을 모두 알려 주셨습니다. 그날의 제자들처럼, 내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과 심박(深博)한 신앙 체험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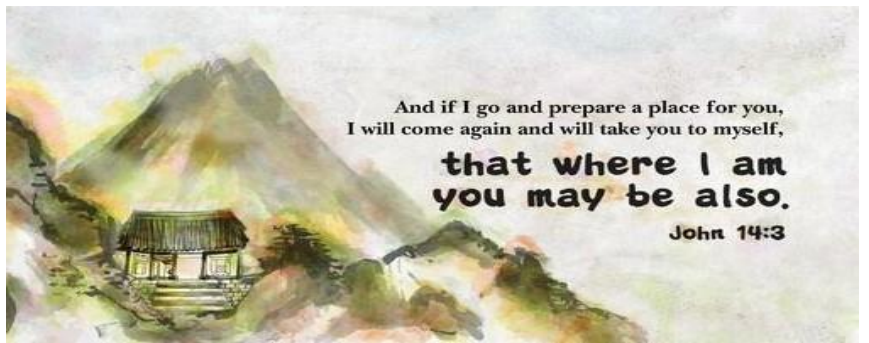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오늘 독서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 줍니다. 제 1 독서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선포)을 첫자리에 두었기에 온 교회의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났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제 2 독서는 하느님께서 손수 놓으신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사제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기도와 복음서와 성체성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 들어가는 세 개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 말로 '진리'(알레테이아)는 '망각'(레테)의 반대말입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서는 기도와 성경과 미사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잊고 있던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삶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찾아내며, 주님을 따라 기쁘게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4,6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Jn 14,6



| 부활 제 5 주일 (생명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우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베르고노네 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 없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성모 성월

5 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교회는 매년 5 월을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고 다른 어느때보다도 열심히 자주 성모를 공경하고 성모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신문 - 성모성월 특집 (1) 성모성월의 의미와 유래]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de_view.php?aid=175271

[성모 성월 기도문] <https://missa.cbck.or.kr/Prayer/26>

생명주일이란?

해마다 5 월의 첫 주일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죽음의 문화'의 위험성을 깨우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는 '생명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1995 년부터 5 월 마지막 주일을 '생명의 날'로 지내 오다가, 주교회의의 2011 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 이를 '생명 주일'로 바꾸며 5 월의 첫 주일로 옮겼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더욱 적극적으로 '생명의 문화'를 이루어 나가자는 데 생명 주일을 지내는 뜻이 있습니다.

[가톨릭신문 생명주일 관련 특집기사] <https://tinyurl.com/2m7rt5s3>

[생명 운동 기도문 - 마리아의 노래] <https://missa.cbck.or.kr/Prayer/855>

제 13 회 생명 주일 담화 「생애 말기의 윤리적 도전과 생명의 의미」

성경구절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문희종 주교님(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올해 제 13 회 생명 주일을 맞이하여 위의 주제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이번 담화문을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도전받는다 이 시기에 생명의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22 년 6 월 15 일 국회에서는 말기 환자이며 건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에게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조력 존엄사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되었음을 소개하시면서, 이는 안락사에 해당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생애 말기가 무의미하며 죽음조차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는 인간의 자유가 절대적이며 고통은 어떤 의미나 가치도 없다는 실용주의와 공리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고통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없애야 할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이미 현대인들은 의학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종교적인 시각은 그만큼 잃어 가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노인 자살이나 노인 고독사도 이러한 문화를 보여주는 현상이시면서 이는 노인들을 그저 사회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여기는 '버리는 문화'가 퍼져 있기 때문이고, 이 '버리는 문화'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배척된 노인들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경제적 빈곤으로 삶의 무의미함을 느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주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생명은 근본적인 가치이며 생명이 없다면 인간의 다양한 활동도 사회 공존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일깨우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생명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며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때때로 죽여 달라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원의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고뇌에 찬 간원이다"(안락사에 관한 선언 「가치와 권리」, Ⅱ)라고 교회는 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끝으로 주교님께서는 생명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에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모든 형제자매가 생명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https://www.cbck.or.kr/Notice/20230188?gb=K1200>



| 부활 제 5 주일 (생명 주일) 주간실천 |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④
 조명의 조도 낮추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③
 스마트폰 사용시간 줄이기
 데이터 1MB만 덜 사용해도 탄소 11g을 줄일 수 있어요.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2강 구약시대의 역사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안소근 수녀의 구약 종주 |
 구약의 전체적인 구성을 훑어봅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35강]
 당신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판관기 3부 | 6-9 장

cpbcTV 가톨릭콘텐츠의 모든 것
 우주가 없다면
 하느님도 사라질까?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김도현 바오로 신부 |
 가톨릭 둘레 특강#2

미사 참례자수

4월 23일	성인 54 아이 18	4월 30일	성인 47 아이 17
--------	-------------	--------	-------------

우리들의 정성 (4월 29일(토)~ 5월 5일(금))

권묘순	김요한	남궁영근	서진원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허준	교무금 \$615 (12 가정) / 봉헌금 \$355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봉사자 안내

	5월 7일, 부활 제 5 주일 (생명 주일)	5월 14일, 부활 제 6 주일
독서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예물봉헌	요한반	루카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7일) 요한반 → (14일) 루카반 → (21일) 마르코반 → (28일) 마태오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7일) 요한반 → (21일) 요한반

미사성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입당	예물	영성체	파견
5월 7일	138 만왕의 왕	512 주여 우리는 지금	156 한 말씀만 하소서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5월 14일	77 주 천주의 권능과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151 주여 임하소서	141 죽음을 이긴

♡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성모 호칭 기도'[호칭 기도] /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여러 가지 기도] (링크 - <https://cbck.or.kr/Catholic/Prayer>) 및 '파티마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kgT7zbcWshc>)를 바치시길 권고합니다.